

北韓 貿易 構造 分析을 통한 南北韓 交易 擴大 方案

崔宗洙¹⁾, 金相熱²⁾

Trade Expansion Policy between South & North Korea through the Structural Analysis of North Korea's Trade

Jong-Soo Choi, Sang-Youl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the necessity of in-depth analysis on the trade structure of Nor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inter-Korean trade can bring out mutual economic profits in real terms, and to analyze various problems of inter-Korean trade expansion, and suggest various countermeasures.

First, this study suggests various study methods including text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for North Korea's trade structure for better analysis of North Korea's trade structure.

It used the existing general statistical data, the data of Japanese research institutes, and customs-clearance data from trading partners of North Korea. Second, this study suggests the findings with respect to the mutual benefits to be generated by inter-Korean trad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inter-Korea trade can bring actual economic profits for both Koreas,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in terms of industry, trade and resource. Third,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s which are anticipated to take place from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trad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problems.

1) 한국해양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 한국해양대학교 무역학과 석사과정 무역학전공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inter-Korean trade can bring about benefits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 It categorizes several anticipated problems from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trade and extremely negativ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 of North Korea.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insufficient trade items by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trade item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with OECD members. The study suggests that two Korea replace the current indirect trade policy with the direct trade polic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problems generated from the indirect trade practices of North Korea.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we should change the current policies into the other policies such as barter trade, counter purchase and repurchase trade and open account trade to resolve those problems which are caused by the insufficient foreign reserves of North Korea.

第 1 章 序 論

기존의 北韓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는 거의 모든 경우 1987년까지의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의 北韓 무역 동향을 이해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北韓은 경제관련 통계를 국가기밀이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北韓의 경제변화에 대한 분석정보도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으며,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經濟交流를 추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北韓經濟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제반 경제통계 및 경제정책 등 경제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한경제에 대한 情報不在의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인 교역관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북한 무역구조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北韓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일본의 각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와 北韓과의 교역이 있는 국가에서 발표한 통관자료를 이용하여 상품별 수출입구조를 포함한 북한무역구조를 분석해 보고, 南北韓間의 교역이 南北韓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가, 상호간의 교역의 확대가 양국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南北韓 交易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南北韓 交易 現況分析을 통하여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데서 착안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교역적 측면에서의 남북한 교역을 고찰하

기로 한다. 南北韓 경제관계에 있어 정치문제는 분단국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제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서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지만 南北韓 交易은 施惠性 또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경제적인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실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본 연구를 하였다.

第 2 章 北韓貿易의 政策과 構造

第 1 節 貿易政策

1. 政策의 推移

北韓의 체제성을 감안할 때 北韓經濟에 있어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非社會主義圈 국가 및 국제기관들과의 경제협력, 혹은 자본, 기술, 투자를 북한으로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경제의 개방은 현재까지 3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기별로 다른 특징과 발전과정을 가지고 있다. 제1기는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西方資本 및 플랜트 도입시기로서, 기업의 진출을 배제한 채, 자본과 기술만을 도입하고자 한 시기이다. 제2기는 1984년 9월 營商法을 마련한 이후, 90년대 초반까지로 법적 장치를 갖추면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도모한 시기이다. 제3기는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도입한 경제특구 개발시기인데, 1기와 2기의 방식에 지역의 개발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2. 政策의 基調

北韓은 해방 이후 구소련형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이를 토대로 北韓式 經濟運用原理를 발전시켜 왔다. 이와 같은 北韓의 독특한 경제운용원리는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北韓의 무역정책은 國家指導의 原則, 互惠平等의 原則, 自立的 民族經濟의 原則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방針은 1972년 12월에 개정된 新憲法에 잘 나타나 있다. 新憲法 제31조에 의하면 “對外貿易은 國家 또는 國家의 감독하에서

3. 健全경제원구조 및 貿易發展 (1990. 9. 11)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完全한 平等과 互惠의 原則 위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民族經濟를 保護하기 위해 關稅政策을 실시한다.”⁴⁾라고 규정되어 있다.

第 2 節 貿易構造

1. 貿易推移

北韓의 대외교역은 1988년 總交易額 48억9천만달러를 절정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중국, 러시아 등의 援助中斷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1991년 이후 최근까지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역수지 또한 적자가 계속되어 1993년 外債總額이 103억2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은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무역확대를 위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 및 곡물류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貿易 第一主義政策을 지향하고 있다. 1993년도 北韓의 總貿易額은 1992년에 비하여 약 8.2% 감소된 26억4천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며, 수출은 10억2천만달러, 수입은 16억2천만달러를 기록하여 수출입 모두 前年對比 각각 8.3%와 7.8%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3년의 무역수지 적자는 前年對比 6.2% 축소된 6억35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 4>참조).

<表 4> 北韓의 貿易推移

(單位 : 억달러, %)

구 분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수 출 (A)	8.1	14.4	13.5	14.9	16.4	20.3	19.1	19.6	10.1	10.3	10.2
수 입 (B)	10.9	17.4	17.2	21.1	25.0	32.1	28.9	27.6	17.1	16.3	16.2
무역규모 (C=A+B)	19.0	31.8	30.7	36.0	41.4	52.4	48.0	47.2	27.2	26.6	26.4
무역수지 (A-B)	-2.8	-3.0	-3.7	-6.2	-8.6	-11.8	-9.8	-8.0	-7.0	-6.0	-6.0
G N P (D)	94	135	151	174	194	206	211	231	229	211	205
무역의존도 (C/D)	20.2	23.6	20.3	20.7	21.0	25.0	22.7	20.1	11.9	12.6	12.9

자료 : 무역협회 「주요북한 경제지표」 1993, 1995년판을 이용하여 재구성.

4) 통일원, 「북한경제개관」 1988., p. 74.

2. 地域別·品目別 貿易構造

1) 主要國別 貿易構造

1993년 北韓의 국별 수출은 중국(27.7%), 일본(23.5%), 남한(16.6%)의 順이며, 국별 수입은 중국(37.1%), 일본(13.6%), CIS(12.7%) 순으로 수출입 모두 근거리에 위치한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北韓의 대외교역 패턴에서 나타나는 가장 주목할 사항은, 對蘇 의존도의 탈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 品目別 輸出入構造

1992년도 北韓의 주요 수출품은 광산품, 금속품(3억7천1백만달러), 섬유제품(1억6천6백만달러)과 동식물제품(1억1천1백만달러)과 같은 단순 또는 비가공 1차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北韓의 총 수입액 중 3억2천만달러를 차지하는 광산품, 금속품은 85%가 중국으로부터의 원유(1억3천808달러)와 유연탄(6천200만달러)의 수입에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도 北韓의 품목별 무역패턴은 1992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3년도 北韓은 총 수입액의 9.26%인 1억1천2백만달러어치의 식물성 생산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93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물성 생산품은 1억2천1백만달러어치로 대부분의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을 알 수 있다. 태국 및 캐나다로부터도 각각 소량의 쌀과 소맥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도 北韓의 곡물생산은 338만톤으로, 이 중 34%인 131만톤 정도만이 쌀생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현재 매우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를 겪고 있음에도 외화의 부족으로 충분한 양을 수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품목별 수출입구조분석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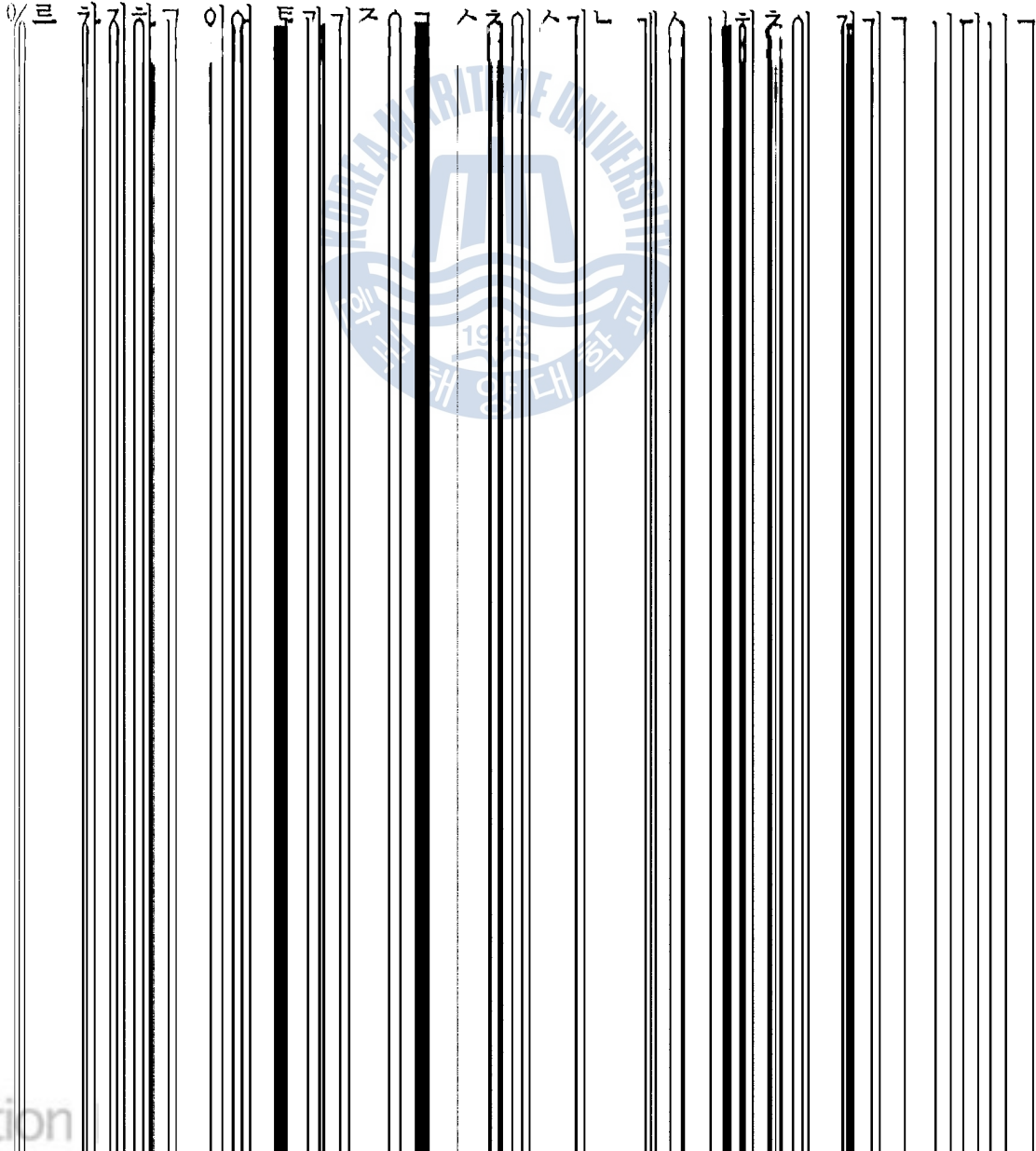
第 3 章 南北韓 交易의 現況과 問題點

第 1 節 南北韓 交易의 現況

1. 南北韓 交易 現況

1) 交易規模

1988년의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1994년까지의 교역 통관총액은 6억9천8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1993년까지 누계된 교역규모에서 수입이 94.9%, 수출이 5.1



2. 地域別·品目別 貿易構造

1) 主要國別 貿易構造

1993년 北韓의 국별 수출은 중국(27.7%), 일본(23.5%), 남한(16.6%)의 順이며, 국별 수입은 중국(37.1%), 일본(13.6%), CIS(12.7%) 순으로 수출입 모두 근거리에 위치한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北韓의 대외교역 패턴에서 나타나는 가장 주목할 사항은, 對蘇 의존도의 탈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 品目別 輸出入構造

1992년도 北韓의 주요 수출품은 광산품, 금속품(3억7천1백만달러), 섬유제품(1억6천6백만달러)과 동식물제품(1억4천1백만달러)과 같은 단순 또는 비가공 1차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北韓의 총 수입액 중 3억2천만달러를 차지하는 광산품, 금속품은 85%가 중국으로부터의 원유(1억3천808달러)와 유연탄(6천200만달러)의 수입에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도 北韓의 품목별 무역패턴은 1992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3년도 北韓은 총 수입액의 9.26%인 1억1천2백만달러어치의 식물성 생산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93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물성 생산품은 1억2천1백만달러어치로 대부분의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을 알 수 있다. 태국 및 캐나다로부터도 각각 소량의 쌀과 소맥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도 北韓의 곡물생산은 338만톤으로, 이 중 34%인 131만톤 정도만이 쌀생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현재 매우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를 겪고 있음에도 외화의 부족으로 충분한 양을 수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품목별 수출입구조분석에서 알 수 있다.

第 3 章 南北韓 交易의 現況과 問題點

第 1 節 南北韓 交易의 現況

1. 南北韓 交易 現況

1) 交易規模

1988년의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1994년까지의 교역 통관총액은 6억9천8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1993년까지 누계된 교역규모에서 수입이 94.9%, 수출이 5.1%를 차지하고 있어 통관기준으로 수출입수지는 계속 남한측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南北韓 交易은 현재까지 南韓이 북한물품을 사주기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地域別·品目別 貿易構造

1) 主要國別 貿易構造

1993년 北韓의 국별 수출은 중국(27.7%), 일본(23.5%), 남한(16.6%)의 順이며, 국별 수입은 중국(37.1%), 일본(13.6%), CIS(12.7%) 순으로 수출입 모두 근거리에 위치한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北韓의 대외교역 패턴에서 나타나는 가장 주목할 사항은, 對蘇 의존도의 탈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 品目別 輸出入構造

1992년도 北韓의 주요 수출품은 광산품, 금속품(3억7천1백만달러), 섬유제품(1억6천6백만달러)과 동식물제품(1억1천1백만달러)과 같은 단순 또는 비가공 1차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北韓의 총 수입액 중 3억2천만달러를 차지하는 광산품, 금속품은 85%가 중국으로부터의 원유(1억3천808달러)와 유연탄(6천200만달러)의 수입에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도 北韓의 품목별 무역패턴은 1992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3년도 北韓은 총 수입액의 9.26%인 1억4천2백만달러어치의 식물성 생산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93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물성 생산품은 1억2천1백만달러어치로 대부분의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을 알 수 있다. 태국 및 캐나다로부터도 각각 소량의 쌀과 소맥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도 北韓의 곡물생산은 338만톤으로, 이 중 34%인 131만톤 정도만이 쌀생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현재 매우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를 겪고 있음에도 외화의 부족으로 충분한 양을 수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품목별 수출입구조분석에서 알 수 있다.

第 3 章 南北韓 交易의 現況과 問題點

第 1 節 南北韓 交易의 現況

1. 南北韓 交易 現況

1) 交易規模

1988년의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1994년까지의 교역 통관총액은 6억9천8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1993년까지 누계된 교역규모에서 수입이 94.9%, 수출이 5.1%를 차지하고 있어 통관기준으로 수출입수지는 계속 남한측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南北韓 交易은 현재까지 南韓이 북한물품을 사주기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品目構造

1989년부터 1993년까지 통관된 수입품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철강·금속제품이 전체수입의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임산물이 6.3%, 광산물이 5.3%, 석유류가 33.3%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편차가 있으나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금속에 분류되어 있는 금괴·아연괴, 은괴, 빌레트, 열연코일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1993년 수입통관 품목구조는 철강·금속이 86.6%, 농·임산물이 5.4%, 석유류가 5.0%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석유류의 수입비중이 1992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위탁가공무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第 2 節 南北韓 交易의 問題點

1. 對北韓 輸入爲主의 交易

南北韓 交易構造를 살펴보면, 南韓의 수입위주인 것을 알 수 있다. 승인기준으로 南北韓 交易에서 南韓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1%, 1991년 95%, 1992년 94%, 1993년 95%로서 1994년까지의 수입 총액 6억9천8백만달러의 94%(6억5천1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1990년 91%에서 1993년에는 95%로 계속 증가추세

에 있는 수입비중이 1991년의 경우 다소나마 감소한 것은 위탁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이다.³⁾

2. 間接交易 爲主의 交易方式

현재 추진되고 있는 南北韓 交易의 형태를 보면, 1994년 해외중개상을 통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간접교역이 전체 南北韓 交易의 95.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수입된 불량품에 대한 補償裝置의 未備, 북한 귀향선박 확보의 어려움과 납기 지연, 북한측의 일방적 계약과기 등 간접교역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인해 교역확대 유인은 더욱 제약받고 있다.

3. 낮은 去來 成事率

南北韓 交易에서 承認對比 通關比率은 1990년 53.7%, 1991년 57.9%, 1992년 81.2%, 1993년 93.9%로 1988년 南北韓 交易이 시작된 이래 1994년말까지 전체승인대비 통관비율은 77.1%에 불과하다.

특히 수입의 경우 1991년말까지 거래성사율이 79.8%인 반면, 수출의 경우는 17.7%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北韓이 외화난 타개를 위하여 南韓으로 수출하는 데는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북한 내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南韓에서의 수입은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制度的 裝置의 未備

經濟交流와 協力을 위한 投資保障協定, 貿易協定, 二重課稅防止協定 등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아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체제상의 차이로 인해 발행하는 위험을 부담해야하며, 紛爭發生時 신속 공정한 해결이 어렵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러한 법적인 제약외에도 기업들은 결제제도, 수출입상품에 대한 가격기준, 수송·통신망의 연결 등 제도적 기반미비로 인한 중개수수료 증가, 운송비용상승, 원산지증명의 곤란 등을 추가적으로 감수해야 한다.

또 특히 1994년 대북 민중약 증액은 「북·미 합의문」이행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총액 5억(4백51만5천 달러)에 대한 공급원은 떠날 국내기업 유망이 북한에 만족(1994.12)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5. 社會間接資本의 脆弱性과 情報의 不足

北韓은 현재 鐵道, 港灣, 道路,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이 매우 劣惡한 실정이다. 특히 전력의 경우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압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社會의 閉鎖性과 硬直性으로 인하여 현지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다른 나라에서의 투자경험을 적용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 대북교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6. 北韓의 交易對象品目の 不足

北韓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출입규모나 주요 수출품이 광산물, 수산물 등 1차상품인 점을 감안한다면, 南北韓間의 교역품목이나 교역규모는 당분간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南北韓 交易의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北韓의 外貨不足과 交易商品의 不足이며, 이같은 교역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풍부하고 값싼 자원과 南韓의 자본, 기술을 합작하여 값싼 상품을 생산, 수출하면 北韓의 외화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남한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第 4 章 南北韓 交易 活性化 方案

第 1 節 南北韓 交易 品目 擴大方案

南北韓 交易有望品目は 남북한의 1990~92년도 對OECD 무역통계를 기초로 도출하였다. 北韓은 무역규모가 작는데다가 어떠한 통계자료도 발표하고 있지 않아 전체적인 北韓의 수출입상품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통계자료 입수상의 난점과 객관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同資料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對OECD 主要 輸出品目이 1차상품이며, 主要 輸入品이 2차상품이어서 南北韓 交역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南韓의 주요수출품목이 2차상품이고, 1차상품을 주로 수입하는 수출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교가 가능하며, 자료 또한 신빙성이 있어 유의할 것으로 본다. 北韓으로부터의 輸入可能品目으로는 무연탄, 철광석, 연괴(鉛塊), 선철, 시멘트, 아연괴(亞鉛塊), 규사, 고철, 명태, 누에고치, 팔, 옥수수, 피마자, 수산물, 한약, 목재, 건축용 석재, 알루미늄 등 주로 1차 산업품목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對北

韓 輸出可能品目으로는 철강제품, 재봉기, 경운기, 승용차, 이륜자동차, 시계, TV 수상기, 전기 전자제품, 섬유산업제품, 의약품, 통신기기, 비닐 등 2차 산업제품이 주가 될 것이며, 이 밖에도 쌀 등 주요 곡물도 수출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第 2 節 制度改善을 통한 南北韓 交易 擴大方案

지금까지 이루어진 南北韓間 交易의 대부분은 제3국인에 의한 仲介貿易 형태로 서, 間接交易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역방식은 南北韓間의 交易이 점차 확대되고 무역협정의 체결과 양측의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지는 등 직접교역의 여건이 성숙되기까지의 과도기적 거래방식으로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현단계에서는 불가피한 방법이나 교역의 증대를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직교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去來方式 및 決濟方式의 改善方案

1) 去來方式

北韓의 심각한 외환수지에 타격을 주지 않고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구상무역의 한 형태인 바터제(Barter) 또는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형태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北韓은 수출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적고, 생산기술면에서도 수출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南北韓間의 물자교류의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제품환매를 통한 거래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清算決濟方式(Open-Account Settlement)의 活用

정산결제제도란, 2국간에 이루어지는 교역에 대해 거래시마다 現金으로 결제하지 않고 양국의 지정은행에 개설된 清算計定에 輸出과 輸入額을 記帳해 두었다가 1년을 단위로 그 대차의 殘額만을 決濟하는 方式을 말한다.

그러나 정산결제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입 및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교역질서와는 상반되는 점이 있어 國際紛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北韓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불가

피할 것이며, 계획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청산거래의 도입은 北韓의 개방지원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제방법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가 市場經濟體制로 轉換함에 따라 청산거래방식이 소멸되고 있는 현상황하에서 지난 시대의 유물로 간주되는 청산결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표 34>참조).

<表 34> 清算去來方式의 導入效果

긍 정 적 효 과	부 정 적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경화부족 문제 해소 · 남북한교역의 확대·발전 가능성 · 교역수지의 불균형 해소 · 남북한간의 기합의된 내용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교역환경변화에 역행 ·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역행 · 국제법적 문제(IMF 8조에 저촉) · 북한의 청산거래 악용 가능성(판매 어려운 제품만 청산거래 이용)

남북한간 직교역을 위해서 취해야 할 절차는 우선, 당국간 교역의 제도적 장치와 교역원칙에 관한 기본협정이 맺어지고, 남북한 청산은행간 청산결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 당해년도 교역가능 품목 및 수량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무역의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결제와 병행됨으로써 청산결제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산결제제도의 도입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부상품에 대해서 北韓이 南韓으로부터 반드시 수입하고자 하는 물량(혹은 총 거래금액)을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급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⁶⁾ 또한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결제통화의 지정문제이다.

2. 交易下部構造의 改善方案

南北韓 交易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通行, 通信, 輸送 등 交易下部構造 改善이 시급하며, 현재 남북한간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直航路의 개설을 통한 수송조건 개선은 통신이나 통행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다. 직항로의 개설을 통한 輸送條件의 改善은 수송기간의 단축과 상품의 납기지연 방지, 화물운임의 절감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6) 이 경우 북한측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수출의무를 부과하게 되며 이들 품목은 청산계정내에 자유교역상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關稅問題의 改善方案

현재 南北韓 交易은 國內法上 內國間 去來로 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南北韓 交易이 내국간 거래로 인정되는 근거로서는 南北韓間의 기본합의서 제15조에 명시된 사항과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는 남북한간의 합의나 국내법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인정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

第 5 章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첫째, 北韓의 폐쇄성으로 인한 제반 경제통계 및 경제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해 비정상적인 교역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北韓의 무역구조를 정책, 체계, 국별·지역별·품목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南北韓 交易은 施惠的·政治的 目的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南北韓 交易이 상호간의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경제적 이익창출의 가능성을 보였다.

셋째, 南北韓 交易 現況分析을 통하여 교역확대의 문제점으로 간접교역위주의 교역방식과 교역대상품목의 부족 등을 찾아내어 그 해결방안으로 直交易 活性化方案과 交易有望品目을 제시하였다.

넷째, 南北韓 交易을 통해 양국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南北韓 交易의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현행의 간접교역방식이 아닌 직교역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도입을 위한 去來方式 및 決濟方式의 提示와 關稅問題, 內國間 去來로서의 國際的 認定의 必要性, 貿易下部構造의 改善策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교역대상품목 부족의 해소를 위해 北韓과 南韓의 수출입 상품구조를 對 OECD 수출입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교역유망품목의 제시를 통해 교역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南北韓 交易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한 순수한 경제적 원칙에 입각하여 교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교역을 위한 제반 여건 성숙화

를 위해 교역에 필요한 각종 협정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에서도 무분별한 對北 投資나 交易을 자제하고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南北韓 交易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實證的인 分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역확대를 위한 연구와 병행하여 남북한 經濟協力에 관한 研究와 經濟共同體構成에 관한 연구도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I. 國內文獻

- 강관우, 「사회주의 국가 경제계획」, 1990.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1986.
- _____, 「남북한 대외경제협력 현황과 무역구조의 비교」, 1975.
- 김광수, 박일수, 「북한경제」,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 김수현, 「남북한 경제 비교분석과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김영호,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의 전망”,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43집, 제1호, 1995.
- 김정택, 「북한의 무역구조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정책」, 1994.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남북한 경제교류의 과제와 대응방안」, 1993.
- 동남은행 지역개발연구실, 「북한의 최근 경제동향과 남북경제교류의 전망」, 1995.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1992.
- _____,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1994.
- _____, 「북한의 대남 동향분석」, 1993.
- 박수규, 「북한의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 추이와 전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1.
- 산업연구원, 북한경제, 1993.
- , 북한경제 전망과 남북경협, 1995.
- 삼성경제연구소, 남북경협, 1995.
- 서제일, 남북한 경공업분야의 협력증진방안, 산업연구원, 1994.
- 삼재권, 남북한 경제교류 가능품목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1984.
- 안석교, "남북한 경제교류의 과제",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13집, 제1호, 1995.
- 유종식, 남북합작 투자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유진수, 북한경제의 현황 및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 1991.
- 이상만, 통일경제론, 형설출판사, 1991.
- 이상직·최신림·이석기, 북한경제전망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1995.
- 이종식,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Changing Regional Context, 1995 국제학술대회자료, 인제대학교 출판부, 1995.
- 이현재, 남북한 경제교류를 보는 시각, 1995.
- 최신림, 북한의 무역구조, 산업연구원, 1991.
- 통일연수원, 북한이해, 1995.
- 통일원,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4.
- , 북한연구, 계간지 각호.
- ,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 , 남북한경제지표, 1993.
- , 남북교역사례집, 1993.
- 한국개발연구원, 남북 위탁가공무역의 현황 및 확대방안, 1994.
- , 남북한 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1992.
- ,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남북투자추진방향, 1995.
- , 북한경제동향, 1991.
-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실무 길잡이, 1995.
- , 주요북한경제지표, 1993, 1995.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추진방향과 우리의 경제적 대응」, 1994.
 한국은행, 「북한의 GNP추정결과」, 각년호.
 한용원, 「북한연구 - 통일을 위한」, 박영사, 1989.

II. 外國文獻

- Theodor, Dams J. German Unification : Challenges Experiences-Results
 -Perspectives, 1995.
 OECD, Statistics of Foreign Trade, 1991~1993.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각년호.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의 經濟と貿易의 展望」, 各年號.
 ARC 레포트, 「北朝鮮 經濟의 動向と見通し」, 1989, 1992, 1994.
 日本大藏省關稅局, 「日本貿易統計月報」, 各月號.
 東ASIA貿易研究會, 「東ASIA經濟情報」, 1993.
 Foster-Carter, Adin. 「Korea's Coming Reunification : Another East-Asian
 Superpower ?」, London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